

4월 일기장



이름 : 말레이 얏호

special olympic에서 보내는 일기

(4월14일, 스페셜 올림픽. 모두가 이 날을 위해 연습했다!)



special olympic에서

우리는...!



올림픽 당일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했다. 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울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서 베다니홈으로 가는 길은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잠시 후, 펠룩인탄에 도착해서 우리는 운동장 주변으로 색이 있는 깃발을 달아야 했다. 그런데 보관을 잘못된 탓에 엉켜진 끈을 푸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 하, 정리의 중요성이란...흑흑. 이번 행사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행사가 잘 진행되는 걸 보고 신기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일까?

(광호: 아마 묵묵히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어서...그런 거 아닐까?)
한편, 보영이는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 아이의 침을 닦아주는 부모님의 모습, 사랑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영이는 울컥했다. 행사가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보영이는 이 많은 걸 어떻게 치우나 걱정이 들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수월하게 끝이 날 수 있었다. 우리도 행사의 부분 부분이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special olympic에서

우리는...!



행사 전 날 준비 때문에 아침부터 분주하고 준비할 게 정말 많았다. 광호도 아침 일찍 올림픽 장소로 가서 행사준비를 해야 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시간을 봤는데 겨우 아침 9시였다. 힘들었다. 개막식은 2시가 넘어서야 시작되었다. 행사를 한창 진행하다가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게 되었다.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 행복해보였다. 모두들 이미 승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즐겼다. 행사가 끝날 무렵, 마지막에는 선생님과 자원 활동가들의 계주가 시작되었고 우리 팀이 2등을 했다. 꽤 잘한 듯하다. 수고했어. 정리가 끝나고나니 8시가 다 되어간다. 오늘 하루종일 덥고 힘들었지만 나에게서는 오늘이 가장 보람찼다. 다 같이 무언가를 끝내고 함께 돌아오는 이 기분. 마치, 군대에서 작업을 끝내고 복귀하는 기분이다. 아무튼 오늘은 정말 보람찬 날이다.





지훈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다. 오전엔 경기 진행 장비를 설치했다. 시간이 훌쩍 지났다. 점심을 먹고 오니 아이들이 와있었다. 이래저래 모두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낮이 익은 분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 캠프에서 만났던 노말라 선생님이었다. 캠프에선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다. 이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들도 나에게 너무 소중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중략)

행사가 끝난 후, 정리도 하지 않고 호주친구들은 서둘러 KL로 가는 버스를 탔다. 2주간의 그들의 일정이, 나의 1년 전, 2년 전, 2주간의 단기 봉사와 겹치면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나도 그랬겠지, 하면서 말이다. 행사를 마친 후,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그런데 기분이 좋다. 즐겁다. 그리고 조금이지만 이곳에 조금 더 힘을 보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 즐거웠다. 앞으로 더 즐거울 수 있겠지 라고 혼자 되뇌었다. 물론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은 내 몫이겠지만.

한편, 헤민이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다. 너무 외로웠다. 먹을 게 없어서 계란만 계속 먹고 있었다. 아침 일찍 팀원들이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다.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온 팀원들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다. 특히 지젯... 지젯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보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 참, 우리팀이 봉사자들끼리의 계주경기에서 2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계주를 하지 않아서 우리팀이 2등을 한 것 같다. 흑흑...

몰라카에서 보내는 일기

(휴일과 주말을 이용해 떠났다, 4월 19일~22일)



몰라카에서 우리는...!



모두가 바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광호는 모두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팀원들을 이끌고 바다에 갔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몰라카 전역이 보인다던 관람차, 아이온 말레이시아는 재작년에 없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보영이는 분명 어제 병원에 가던 길에 봤다고 했다. 보영아 니가 본건 뭐였니? 우린 잠시 방황했다. 그러던 중에 쇼핑몰을 발견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몰라카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대형 쇼핑몰이었다.

쇼핑몰을 나와서 걸으면서 광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몰라카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는 스코틀랜드의 도시 분위기와 비슷하며 베네치아를 한 번 째 어울리게 하는 풍경의 연속이라고.(?????) 그리고 차이나타운 곳곳에 울려 퍼지는 k-pop,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 광호는 이곳에서 한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인도계가 많이 없는 이곳. 중국계가 거의 대부분인 듯 모든 사람들이 중국 말을 하는 이곳.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과 한국인 것 같은 느낌. 또 네덜란드 광장에서 외국인을 보면 유럽인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도시, 몰라카이다. 아 참, 기억나는 음식이 있다. 5링깃짜리 락사는 잊지 못해 떠나기 전 한 번 더 먹었고, 오레오 바닐라 블렌디드는 3번이나 마셨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소름 돋게 똑같이 만들어진 바퀴벌레를 1링깃에 샀다. 원래 목적은 보영이를 놀리기 위함이었지만 베다니에서 바퀴벌레는 모두를 즐겁게 했다. 1링깃의 바퀴벌레는 30링깃의 가치를 했다.(1링깃 = 370원) 바퀴벌레는 한국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다. 아무튼...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물가에 앉아 사진을 찍으며 말라카의 일정을 마감했다.

몰라카에서 우리는...!



아라는 몰라카로 가는 5시간이 너무 괴로웠다. 멀미가 너무 심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도착한 몰라카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신기한 사뻐도 먹었다. 물론, 다 좋았지만 특히 좋았던 것은, 팀원들과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트라이쇼를 타고 구 시가지를 돌았던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클래식카 전시회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마지막 날 저녁, 유람선을 타면서 구경을 했다. 못보고 지나친 곳이 많다는 걸 알았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보영이는 이번 여행에서 네덜란드 광장 부근의 강가를 걸었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깔끔했던 거리는 특히 더 그곳을 기억나게 했다. 건물마다 개성 있게 그려진 벽화는 특히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자주 갔던 차이나타운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었다. 왜냐면 오랑우탄 하우스 같이 몰라카에서만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다. 정말로 또 오고 싶은 곳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곳에서의 내 소비패턴이 총동적이었던다는 것이다. 예로, 어떤 청각장애인이 세인트 폴 성당 근처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고 계셨다. 당연히 진짜겠지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똑같은 그림이 있었다. 게다가 그 그림은 출력한 그림이었다! 충격이었다.

말라카에서 우리는...!



헤민이는 숙소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시원하고 와이파이기가 빵빵 터졌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내가 라온아띠 국내훈련에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나는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말라카에서의 일정은 많은 곳을 돌아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분명 지치는 부분도 있었다.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고, 이곳의 명물이라는 트라이쇼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 탔을 때 그 1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들이 불편함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직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아, 말라카에서 여행하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려운 것 같다. 왜냐고? 그냥...

몰라카에서 우리는...!



지훈이는 숙소에 도착해서 주인아저씨의 추천으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하다는(어쩌면 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사떼집을 찾아갔다. 과연, 줄은 길게 서있었고 우리도 1시간 가량을 기다려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어떤 할아버지가 구걸을 하러 오셨다. 동시에 주인 아저씨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가게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는 물을 끼얹으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 아저씨는 고스란히 물을 맞고 서있었다. 과연 뭐가 옳은 건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맛보게 된 사떼는 맛있었다. 해산물을 오랜만에 맛 볼 수 있어서 특히 더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다양한 재료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유명하다는 집을 찾아오게 되어서 좋았다. (중략) 오늘은 세인트폴 성당에 올라왔다. 세인트폴 성당 한가운데에는 기타 치는 아저씨가 계셨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더니 나중에는 신이난 관광객들과 아저씨가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이 좋았다. 팀원들이 모두 내려간 후에도 그곳에 한참이나 있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내려가고 나와 그 아저씨만 남게 되었다. 아저씨가 주섬주섬 돈을 챙기셨다. 꽤나 큰 돈이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기분좋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셨다. (중략) 사실 어제부터 트라이쇼가 타고 싶었다. 다른 팀원들은 다른 곳을 둘러본다고 해서 아라와 함께 트라이쇼를 탔다. 아, 그런데 타자마자 정말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킁킁 거리며 우리를 태워주는 아저씨의 다리를 보니 너무 죄송했고 민망했지만 주변의 풍경이, 모습이, 냄새가, 느낌이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와서 행복했다. 아, 그리고 세인트폴 성당도 다시 올라갔다 왔다. 여전히 좋았다. 트라이쇼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다! 당분간 이 한 시간의 기억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낚시하며 보내는 일기!

(로저아저씨의 추천으로 그룹홈 친구들과 함께 낚시하러 감!)



낚시하며 우리는...!



로저 아저씨, 그룹홈 친구들과 낚시를 갔다. 배타고 들어간 곳은 꽤 멋진 곳! 메기만 잡힌단다. 염소와 양이 한 마리씩 보이더니 어느새 원숭이 떼들이 보인다. 광호는 이렇게 많은 원숭이들을 보는건 처음이다.

동시에, 아라는 애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 품에 안기는 걸 보고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 그리고 사실 낚시를 온건 처음이라서 저렇게 물고기가 잡히는 게 신기했다. 낚시는 신기한 거구나... 헤민이는 낚시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을 잘 챙기는 로저 아저씨를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지훈이는 강가에 오니 신이 났다.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낚시를 하러 온건데 강을 보니 신난다. 하지만 금새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온다. 우린 비를 맞으며 낚시를 했다. 굳이 우산을 쓰려하지 않았다. 이젠 비를 맞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



파티에서 보내는 일기!

(친구들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룹홈으로 초대되었다!)



파티에서 우리는...!



헤민이는 한복을 입으니 굉장히 더웠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즐겁기도 했다. 파티중에 한 친구가 "어-어" 하면서 계속 헤민이를 치고 갔다. 파티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이 나를 툭툭 치고 가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다.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는데.. 나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반응해야할까?

아라는 생일잔치를 다니면서 이 곳 문화를 빠르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더링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한편, 파티에 다른 자원활동가들, 선생님들이 오시니 같이 나눌 한국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다. 광호는 또 파전을 만들었다. 파를 많이 넣고 신경 써서 한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뻐다. 우리 오늘 파티에 모두 한복을 입고 갔다. 너무 덥고 땀이 났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옷을 입고 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뿌듯했다.

팡코르에서 보내는 일기!

(3월 31일~4월 1일까지, 베다니홈 식구들과 함께 갔음!)



팡코르 가는 날, 아침부터 비가 왔다. 광호는 베다니홈에서 매기와 키란을 만나 2시간정도를 달려와 팡코르 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다. 아직도 비가 온다. 이 곳 팡코르섬은 캠프 때문에 베다니홈에서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한다. 도착해서 줄곧 물놀이하다가 제트스키를 탔다.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돌아와서 맥주 파티를 했다. 그러다 내가 술게임에서 버스드라이버가 되었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다음 날, 과음으로 인해 두통이 약간 왔다. 다음 날,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분들을 만났다. 김치를 주셨다. 한국의 정은 이런거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와 보영이가 없다. 메모지에는 바다 간다고 써 놨다. 밤 늦게 지훈이랑 보영이가 돌아왔다. 바다에는 가지 못했단다. 무사히 와서 다행이다.

아라는 영어듣기평가 캠프를 1박 2일을 하고 온 것 같았다. 스피킹 테스트도 있었으나 빵점... 나는 대화를 듣기만 했지만 같이 뭔가를 하니깐 아주 조금 다른 봉사자들과 친해진 것 같았다. 바다를 무서워하는 나를 아기 보살피듯 챙겨준 매기가 고마웠다.

한편, 헤민이는 영어도 못하고 수영도 못해서 순간 괜히 왔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보내는 날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행복하게 남겠지, 이런 순간이 언제 오겠어,라고 생각했다. 키란과 아즈미가 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한국말로 "하지마요. 나 수영 못해요." 라고 하며 물을 먹었다. 무서웠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많이 피곤했고 같이 오지 않은 보영이와 지훈형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없었다. 바다에 간다는 메모만이 남아있다. 더 무서워졌다.

4월의 사건, 사고!

"지진이야!"

광호는 아침부터 가드닝을 했다. 삽도 없이 작은 곡괭이로 나무뿌리를 뽑으려니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잠시 후, 곡괭이에 머리를 찜찜했다. 머리가 아팠다. 으. 오후엔 베다니 홈에 갔다. 전통춤을 연습하기 위함이었다. 연습을 하고 쉬고있는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바닥을 보고 앞을 쳐다봤다.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울렁거렸다. 나는 '아.. 곧 쓰러지겠다.' 라고 생각했다. 아침에 머리 찜찜은 탓인가 싶어서 걱정이 시작되었다. 쓰러질 준비를 하려고 손을 바닥에 짚는 순간, 갑자기 헤민이가 "아, 어지럽다.", 지훈이도 "아, 어지럽다" 고 말했다. 진짜로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배를 탄 듯 천정에 달린 TV도, 수영장도, 나무도 흔들거렸다. 지진이였다. 인도네시아에서 8.2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김치 등장!"

광호는 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사 놓은 배추부터 절였다. 배추, 새우젓, 생강, 고춧가루 등 김치 담그느라 바쁘다. 고춧가루가 많이 맵다. 잘못될까, 신경 쓰였지만 담아놓고 보니 색깔도 곱고 익으면 맛있겠다. 색이 고운 김치를 보고 있으니 헤민이와 보영이는 행복하다. 헤민이는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어졌고 보영이는 수제비와 함께 김치를 먹을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정전 ... ?!!!"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암흑이었다. 정전이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동네에 몇 개 없는 가로등마저 켜지지 않는다. 온 세상이 암흑이었다. 이때다 싶어 지훈이는 말라카에서 샀던 장난감 바퀴벌레를 어둠 속으로 던졌다. 곧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정전이 되니 모두가 모처럼 거실에 다같이 모였다. 캄보디아팀 누군가의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이 떠올랐다. 너무 덥고 어둡고 불편했지만 서로가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좋다고 했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동네 전체를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밤하늘을 별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의 올려다보는 하늘인지, 밤인지, 그리고 여유인지 몰랐다.

한편, 옆집 선생님이 촛불을 가져다 주셨다. 헤민이는 이제 우리가 한 가족, 한 동네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 만약 정전이라면, 그저 집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물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을거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훈이형이 불려서 밖으로 나갔다. 하늘이 정말 예뻐다. 밤하늘에 별이 빼곡히 가득차 있었다.

"... 로드킬"

그날, 헤민이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길에 강아지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봤다. 기분이 좋지 않아졌다. 사실 내가 채식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동물의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아지의 죽음을 보니 채식을 하는 내가 다행스럽게 여겨졌고, 이 문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누군가에 대해 강제하고 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보영이의 베다니 일기.

*3/26~ 현재, 많이 한 고민들 위주로 편집, 재구성 하였음.

서보영의 일기에서 발췌.



1.

베다니에 왔을 때 한주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였다.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났고, 산만하게 굴때도,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났었다. 내가 뭘해도 반응도 없다. 여기서 한달 반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아득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친구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공동체에 속한지 고작 1주일째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노력과 에너지는 분명히 그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후에는 편해졌다.



2.

SNU(Special Need)나 Workskill 반에 계신 성인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언제부터 베다니에 계셨을까? 하는 물음이 생겼다. 만약 오래 계셨다면 과연 나아지고 있긴 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인사도 해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모습이 금방 눈에 보이지만, 성인 장애인분들은 내가 느끼기엔 정말 제자리인 것 같다. 같은 exercise를 할 때도 아이들과, 성인분들과 할 때는 내 마음가짐이나 태도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가끔은 회의감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으로 이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모든 관계자분들이 용기있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껴진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나아진다는 믿음 말이다. 나는 아직도 성인 장애인분들이 다소 거북하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3.

2주간 있었던 12명의 호주 volunteer들을 보면서 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은 무책임한 그들이 모습 때문이기도 했지만, 2주 동안 뭘하려고 이곳에 오겠다는 결심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한달 반 정도 베다니에 있을텐데, 나 역시도 짧은 기간을 있다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웃고 즐길 수 있는건, 이 곳에 있다가 결국엔 가게된다는 사실 때문인것 같다고 느꼈다. 내가 과연 선생님이나 학부모였다면, 이렇게 웃고 즐길수있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은 관계를 맺고 떠나가는 내가 과연 호주 친구들과 다르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4.

선생님들은 대부분 Indian이다. 처음엔 인사를 하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본 선생님들은 표정이 얼굴에 금방 드러나고, 약간은 직설적인 말투와 센 억양과 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었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 시간표를 받아 들어간 첫 수업에는 타임테이블을 누가 짜 주셨냐며, 여기에 오는 게 맞냐며 내 타임테이블을 확인하시던 선생님. 첫 수업부터 기가 짝 죽어서 한달 반이 아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다가가기 제일 힘들었던 workskill의 라마니 선생님(이제 서야 고백...)이 걸어가는 나를 보며 쿨하게 오토바이를 태워주셨을 때 그 감동이란...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웰컴" 한마디 하신 채 유유히 사라지셨다.. 또 내가 타밀어를 배우고 싶어하자 한국어를 나도 배우고 싶다며 노트에 받아적던 찬드라 선생님, 로띠 차나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깐 선뜻 사주겠다고 한 제이스리... 그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했던, 가족에 관한 얘거나, 인디안 문화에 관한 얘기들을 용기내어 물어봤을 때, 그들은 정말 반가워해주었다. 선생님들도 내가 먼저 다가와주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른다. 먼저 물어봐주길 기대하고, 다가와주기를 기다렸던 내가 너무 한심했다. 남은 시간 동안 베다니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volunteer들에게 내가 다가가고 싶으면 표현할 것이다. 그들의 표정이나 말투에 상처받을지 몰라도! 선생님들과 친해지니까 베다니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베다니움에서 보내는 혜민이의 일기

Amin의 timetable!

시간	9.00	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00	1.30	2.00	2.30
월	SNU		간식시간	L3B	music(L4)		점심시간	swim(L2)	work skill		
화	SNU			L3B	work skill			work skill	music(L5)		
수	SNU			L3B	music(L4)			work skill			
목	SNU			L3B	Swim(L1)	work skill		work skill	music(L3A)		
금	perhimpunan	music(L4)		music(L5)	music(L6)			Dancing			

- ★ SNU와 L3B는 다른 반에 비해 장애가 심한 친구들이 있다. SNU는 성인장애인, L3B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
- ★ Work skill는 일상생활,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 1~6 :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로 반이 구성되어 있다.



베다니움에서 보내는 혜민이의 일기

'오늘도 힘들었다.'



4월 일기를 뒤적여보면 '오늘도 힘들었다.' 라는 말이 많았다. 시간표를 받은 이후, 내 마음은 혼란스럽기도 했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이 불편하기도 했다. 나는 매일 오전에 SNU를 들어가서 친구들의 화장실 볼일과 양치를 도왔다. 그러다 보니 20살이 넘는 남학생들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히고 다 봤는지 확인한 후 다시 옷을 올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쉽지가 않았다. 수업시간에도 연필을 잡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나를 보지 않는 친구들을 마주하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표정변화없이 소통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어렵게만 다가왔다. 매일 들어가는 L3B 역시 장애가 심한 친구들이기에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을 때리며 자해하는 모습을 보며 울컥하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3주를 보내던 날, 갑자기 SNU친구들이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 친구들의 장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혜민이의 일기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운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귀엽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비록 시간표에 체육 수업이 아예 없게 되면서 나를 더 지치게 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 지싱과 지젯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나를 유난히 따른다거나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 말을 따라하고 달리는 것을 싫어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모든 모습이 정말 좋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병이라고 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예쁘게만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그건 몇 주 후, 베다니홈을 떠나게 되면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리고 차별 받지 않고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러 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했을 때, 팔에 상처하나 생겼을 때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젯과 지싱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었다.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혜민이의 일기

이제 '나' 는 어찌지?



베다니홈에서의 한 달을 돌아오면 막연하기도, 지치기도, 힘들기도 한 날들이었다. 라온아띠 국내훈련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라온아띠를 왜 지원했는지, 나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명상시간, 수업시간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하고 있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곳 생활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고 학교에 가면 잠만 자고 싶었고 하루종일 힘이 없었다. 그래서 무서워졌고 결국 몸이 안 좋다가 올림픽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정말 이제 나는 어찌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직 베다니홈에서의 일정이 1달 남았다. 나는 멍청해서 지금도 여전히 적응 중이며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는 소진에 대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 솔직해지기로 했다. 베다니홈의 친구들이 느끼는 그대로, 계산 없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그 삶을 배우고 어려우면 물어버리고 털어놓는 Amin이 되고 싶다. 물론 어렵겠지만!



베다니움에서 보내는 아라의 일기



나는 바하사를 잘 하진 못한다. 그래도 아이들 옆에서 장난 걸고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즐겁다.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거나 만들기를 하면 많이 힘들다. 선생님들은 그나마 수업진행에 잘 따라오는 친구들과 나를 짝을 지어주신다. 처음엔 할만 하겠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은 불편해진다. 30분 동안 1, 2, 3만 가르쳐도 친구들은 모른다거나 수업 시작한지 10분밖에 안됐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내게 다른 말들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표정관리를 하기 힘들어지고 나를 봐달라는 식으로 목소리만 커지게 되고 표정만 웃게 된다. 조금이나마 이런 가식적인 내 모습을 친구들이 알까, 걱정되기도 하면서 미안하고 한편으론 내 활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눈물...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아라의 일기



내 시간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수업은 work skill이다. 처음에 그 반에 갔을 때, 3일 내내 강당 청소를 했고 그 시간동안 나는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 그 수업이 물론 친구들에게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친구들은 대충 하는 척만 하고 결국 나와 선생님만 청소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이 수업이 과연 친구들이 연습하는 시간인 걸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work skill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정말 좋긴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른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새장을 청소하고 있는 work skill반을 보았다. 그 때도 역시나 선생님 혼자 청소하고 계셨고 아이들은 조금 돕긴 하지만 선생님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하루 종일 청소하시는구나.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텐데.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work skill 수업에 내가 들어감 으로서 선생님께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드리면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함께 청소를 하다 보니 친구들도 자기 능력껏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함께 청소한다고 생각하니 몸은 조금 피곤해도 마음은 지치지 않게 되었다.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아라의 일기



4월 중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level 1,2,3과 함께 한 체육수업이다. special olympic이 끝나고 나서부터 월요일마다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나름 고민도 하고 준비도 했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체육 활동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왜 이거밖에 못했지, 앞으로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 내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일할까봐 걱정되고, 내가 너무 한심하게 여겨졌다. 나중에 집에 걸어오면서 '4월은 적응이나 잘하자.' 라고 다짐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4월 한 달간 베다니홈 식구들과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으니 다짐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이룬 셈인데, 그런건 생각도 안하고 내가 잘못된 것만 계속 생각하고 나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자주 그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와서는 내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조금 품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나를 조금 더 응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라야, 힘내 😊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지훈이의 일기

BOLEH? BOLEH!



어느 한가한 수요일 오후, 점심을 먹고 나니 하늘이 흐려졌다. 아즈미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즈미와 함께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오늘 축구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이내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천둥소리와 함께 세찬 비가 온다. 서둘러 잔디밭쪽으로 갔더니 모두가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비가 와서 오늘은 축구를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아즈미에게 외쳤다. 지금이 기회라고, 나가자고.

왜냐고? 비가 오면 더 즐거워질 것을 아니깐, 더 자유로워질 것을 아니깐 ㅋㅋ. 그래서 결과는? 그 날의 2시간은 정말 원없이 웃고 소리치고 정말 모두가 함께 신나게 놀았다. 정말로 흠뻑 젖었고, 정말로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리고 정말로, 기분이 좋아졌다. 동시에 비에 젖은 채로 물을 튀기며 공을 향해 뛰어다니고 있는 모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했다. 그 순간만큼은 지구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이런 순간 순간들이 모두들이 베다니홈을 잊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지훈이의 일기

BOLEH? BOLEH..



베다니홈에 온지 일주일 남짓 되었을까, 오늘은 뭘 할까 하던 찰나에 실습 나온 현지 대학생친구가 레벨5에 같이 들어가자고 한다. 들어가보니 수학시간, 뿔셈수업이 한창이다. 한 친구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 만약, $53-37=$ 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5에서 1을 빌려와서 $13-7$, 그 다음엔 막대기 13개를 그리고 거기서 7개를 연필로 그어가면서 빼는 방법이 그 친구의 방식. 지켜보던 나는 답답했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매번 막대기를 연필로 그려가며, 손수 빼가며, 계산에 매달리는 친구에게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당연하게도 나의 방식으로 하려니 셈은 번번히 빗나갔다. 그리고 나는 결국 그 친구의 방식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내가 얼마나 나의 잣대로,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친구들을 대하고 평가했는지 모르겠다. 내 결을 순간순간 스쳐간 친구들 중 혹시라도 이런 나의 '일방적인 외침'에 상처받고 힘들어했을 친구들이 있었을까봐 진심으로 가슴이 아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아파졌다.



베다니움에서 보내는 지훈이의 일기

감사합니다1



1. 그 날도 어김없이 축구를 하고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일과를 마친 푸슈바 선생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그러면서 봉투에 담긴 옷을 건네신다. 선물이란다. 아마, 오전에 텔룩인탄에서 너무 더워하시기에 라임주스를 한잔 사서 건넸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주신 듯 했다. 이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럴 때는 나도 참, 내가 싫다. 그냥 감사하고, 잘입으면 되는건데, 그러면 보답하는 건데.

2.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에서의 일이다. 속도는 비록 현저하게 느리지만 그래도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진다. 더불어 1시간에 500원 정도 밖에 하지 않는 착한 가격에 또 한번 감동하며 집으로 가려는 찰나, 뒤따라 나온 알바생이 서둘러 나를 부른다. 내 핸드폰이 그 친구 손에 들려있다. 두고 갔다고 말해준다. 아, 이런 감동의 3연타가 있다. 너무 고맙다. 고마웠다.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동시에 예전에 라오스에서 악몽이 생각났다. 라오스에서 임대폰을 잃어버려서 귀국하고 통장에서 17만원이 사라질 때의 쇼크도 함께 생각났다. 여하튼,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준 마음씨 착한 친구에게 감사하며 그날은 잠이 들었다. 아, 감동이다.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지훈이의 일기

감사합니다2



3. 베다니홈에는 봉사자들 말고도 실습을 나오는 대학생 친구들이 있다. 항상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먼저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선뜻 먼저 선물도 건네고 우리에게 KI에 오면 꼭 연락하라는 친구들, 아 이 마음을 어찌 다 보답할까.

4. 자전거 앞바퀴가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자전거 앞바퀴에 못이 박혀있다. 지켜보던 로저 아저씨가 찬드라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한다. 그리고 곧장, 찬드라가 힘써준 덕분에 토이샵에서 일하는 사티스와 함께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 바퀴를 가지고 자전거 가게로 향했다. 그리고 내 자전거 바퀴는 온전한 새바퀴로 바뀌었다. 감사했다. 모든게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귀 기울여 주는 찬드라 덕분이었다. 모든 일에 신경써주는 찬드라 덕분에 이 곳 생활 적응이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생각한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토이샵에서 일하는 아저씨(사티스)는 나보다 겨우 1살이 더 많다.

수염 때문에 아저씨인줄 알았어, 미안해 형~~~~~

5.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모두에게 감사하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시간이 흘러 가는게 아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들에게 고맙다.

사실, 이런 말을 직접 하기는 닭살 돋는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쓴다.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광호의 일기

'내 친구 Chun Hai'



이름 Chun Hai 89년생 다운증후군을 가진 친구를 베다니 캠프에서 처음 만났다. 캠프 때는 내가 돌봐야 하는 친구여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다. 캠프때 Chun Hai가 샤워실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충격에 휩싸였었고, 알 수 없는 거부감과 함께 난 이 친구의 부모 입장이 되어서 함께하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캠프 이후 내가 베다니로 와서 Chun Hai를 다시 만났는데 예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미안하게 느껴지면서 혹시나 내가 느꼈던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이 친구에게 전해져서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걱정되었다. Chun Hai의 모든 생활은 Independent이다. 생활적인 부분에서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베다니 홈 에서 Chun Hai의 생활은 장애아동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지극히 정상적 이였다. 단지 캠프때의 환경에 적응이 안 되서 용변을 못 가리고 모든 것에 의존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다.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광호의 일기

지금은 Chun Hai때문에 하루하루 베다니 생활이 너무 즐겁다. 아침에 학교에 가면 Chun Hai부터 찾게 된다.행어나 Chun Hai가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도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라고는 'Selamat pagi, Apa Kabar?(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Chun Hai에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Baik(I am fine)' 밖에 없다. 그 대답 하나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부모님 입장은 아니더라도 친구나 형의 입장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만사를 귀찮아 하는, 정말 움직이길 싫어하는 Chun Hai와 아침운동을 할 때면 손을 잡고 팔을 흔들고 눈 쳐다보고 손뼉치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은 친구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 한 켠에 Chun Hai가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들려줘 '바익!'





베다니홈에서 보내는 광호의 일기

'Special Olympic준비'



4월 14일 베다니 'Special Olympic' 을 준비하기 위해 4월의 절반을 다른 활동 보다는 Special Olympic 준비에 참여했다. 베다니홈에서 차로 20여분 떨어진 Teluk Intan의 넓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파라솔을 벗어나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그늘조차 찾기 힘든 곳에서 하는 활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 지쳤다. 그냥 즐겼다. 아이들이 뛰는 걸 보면 박수 쳐주고 싶고 같이 뛰면서 더 힘을 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봉지커피 한 잔으로 천국을 만끽 할 수도 있었다. 여기서만큼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었다.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Special Olympic 최종 리허설을 하는 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불개미 떼들에게 습격을 받았다. 개미집을 밟았는지 개미떼들이 발을 타고 올라와서 수십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한동안 운동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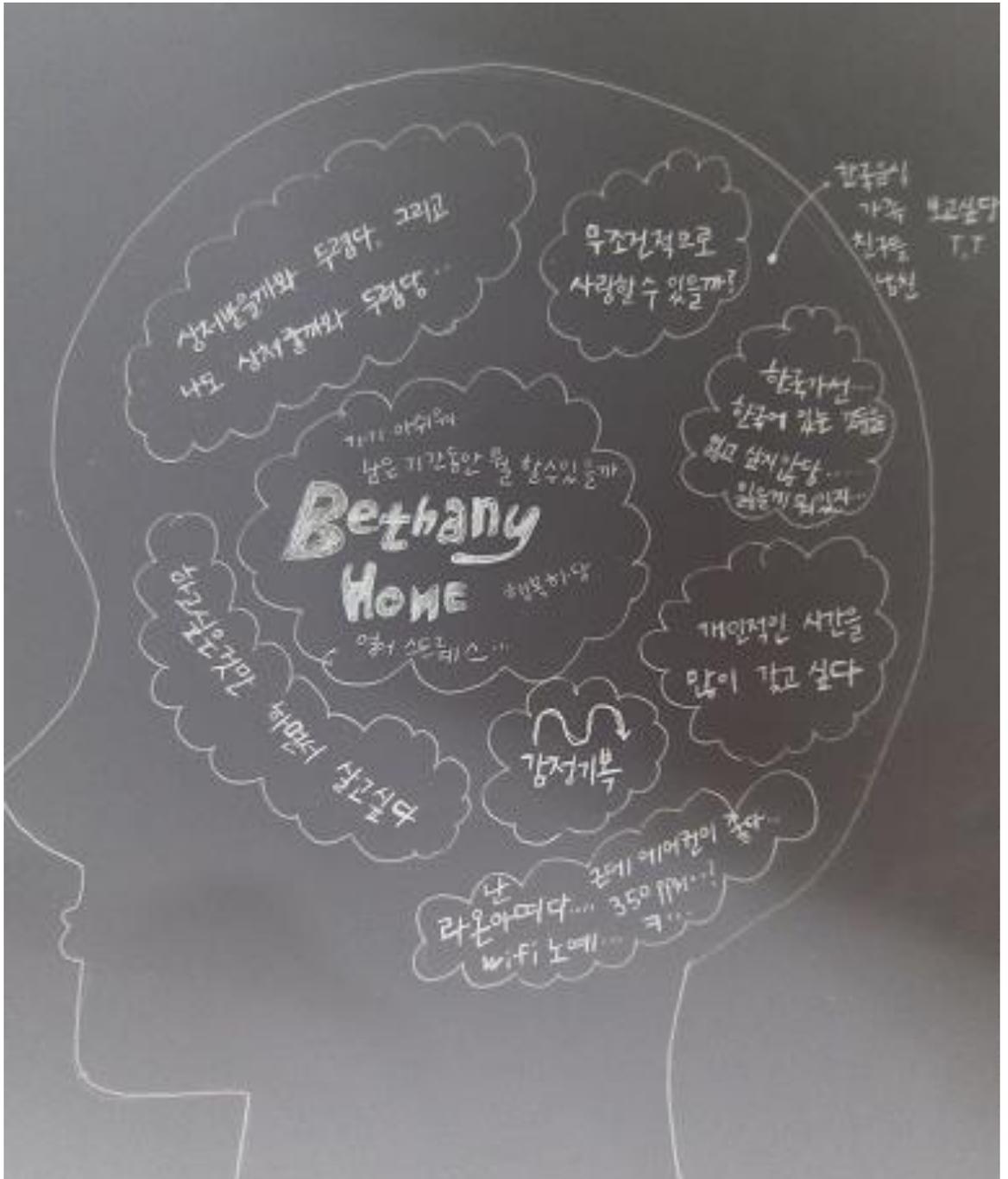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 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지쳤을 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과면 애들이 즐기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Special Olympic라는 거창한 포장 속에 아이들을 넣어놓고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따라오게 하느라 그들을 더 수동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다.





보영이에게 4월은...

복잡.....





혜민이에게 4월은...



이 곳에 와서 조금씩 아팠던 날들이 많았다.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했다. 그런 날들이 있을 때마다 라온아띠로서 내가 적합한가,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그 답이 뭘지는 모르겠다. 아마 가기 전 날까지도 모를 것 같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놓아야 할 것들이 많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고 답을 알고 싶은 나머지 조금한 마음으로 지냈다. 의식적으로라도 한국을 내려놓고 잊어야겠다.

더 멍청멍청한 사람이 되어야지...



지훈이에게 4월은...



놀자 베다니 홈,
놀자 아즈미,
같이 놀자 애들아 !





광호에게 4월은...



온종일 흐르는 땀에 익숙해지고 베다니 홈의 생활이 익숙해지는 시간이였다. 천으로 가려지지 아니한 모든 곳이 검게 탔다. 팔이 족발 같다. 이제 더 탈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 걱정 없이 사는 것도 능력이다. 베다니 아침 회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소한 것들을 걱정 하는 장애가 있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부터 하며 힘들게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그러한 장애가 없다. 행복하면 그냥 웃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있다. 장애를 분류하려 하지 마라. 장애인을 Disable people 혹은 Special people로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less ability people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게 해준 이 한마디를 2012년 4월 이 곳 말레이시아에서 새겼다.





아라에게 4월은...



나를 보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와 함께 웃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는게 즐겁다 :)





사진첩...





사진첩...





사진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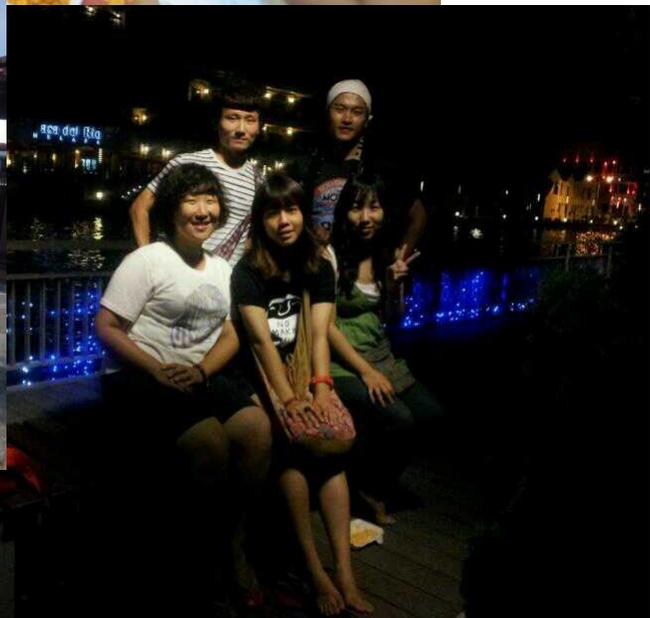


사진첩...





사진첩...





끝까지 앓호